

## '빅리그 복귀 준비' 김하성, 세 번째 재활 경기서 100% 출루...1안타 2볼넷

등록 2026.05.03 09:18:32



[디트로이트=AP/뉴시스]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벌어진 2025 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회초 솔로 홈런을 폭발한 뒤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2025.09.22.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빅리그 복귀를 준비 중인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세 번째 재활 경기에서 100% 출루에 성공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애틀랜타 산하 더블A 팀인 콜럼버스 클링스톤스 소속으로 재활 경기를 하는 김하성은 3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시노버스 파크에서 열린 몽고메리 비스킷스(탬파베이 레이스 산하)와의 마이너리그 더블A 더블헤더 1차전에 2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1안타 2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겨울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지난 1월 중순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손 중지를 다쳤다. 그는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다.

부상에서 회복한 김하성은 지난달 30일부터 더블A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지난 1일 경기에서는 안타 없이 볼넷 1개만 얻었으나 이날 안타 생산을 재개했다.

김하성은 세 차례 재활 경기에서 5타수 2안타, 3볼넷을 작성했다.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낸 김하성은 이후 2사 1루에서 터진 데이비드 맥케이브의 홈런 때 득점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3회말 중전 안타를 날린 김하성은 후속타자의 안타로 2루까지 나아갔고, 루크 와델의 2루타로 홈을 밟아 득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은 5회말에도 볼넷으로 출루했으나 후속타자가 병살타를 쳐 득점을 추가하지는 못했다.

김하성은 7회초 수비 때 교체됐다.

7이닝 경기로 치러진 더블헤더 1차전에서 콜럼버스는 6-8로 패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